

# 2018년도 한국수사학회 수사학아카데미

## 수사학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는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 주제: **고전으로 읽는 수사학, 그리고 현대 수사학**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10시-18시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 호암관 307호 (50307)
- 주최: 한국수사학회

### 초대의 말씀 (하병학, 한국수사학회 회장)

한국수사학회가 개최하는 ‘2018년 하계 수사학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는 수사학 전문 학자, 연구자, 교수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광장입니다. 이와는 달리, ‘수사학아카데미’는 수사학에 관심 있는 학자, 수사학을 연구방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사회에서 말, 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언론, 정치, 사회, 교육, 광고, 예술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합리적인 판단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지향하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일반인 등을 위해 수사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교육 광장입니다.

이번 수사학아카데미에서는 “고전으로 읽는 수사학, 그리고 수사학 교육”이라는 제목 아래 동서양의 수사학 고전 이해에서 출발하여 현대사회에서 수사학의 의미와 연구방향을 함께 익히고자 합니다. 한국의 수사학은 아직까지 한 대학에 전문가가 많지 않아 수사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아카데미는 국내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학 전문 학자들로부터 수사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살피는 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점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SNS 등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보다 다양한 경로로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쾌함과 유쾌함을 선사하는 사이드 발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막말, 거짓말, 가짜 뉴스, 조롱과 이간질의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경도된 이익과 경향을 지닌 사람들만의 폐쇄적인 언어유희와 배타적인 언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조차 합리성을 찾기 힘든 의견 등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수사학의 임무입니다. 수사학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교육과 연관되어 생활세계를 돌보는 실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학아카데미는 한국수사학회가 우리사회를 위해 응당 제공해야 할 교육 광장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사회문화적 특성인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이해와 생산의 지평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합니다.

